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1~7월 규모이상 공업기업 이윤총액 15.5% 감소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7월 규모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의 이윤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15.5% 감소한 3조 9,440억 위안(한화 약 715조 원)이며, 감소폭이 1~6월 대비 1.3%p 축소됨
- 채광업 이윤 총액은 21.0% 감소한 7,827억 위안(약 142조 원), 제조업 이윤 총액은 18.4% 감소한 2조 7,694억 위안(약 502조 원), 전력·난방·가스·수도 부문 이윤 총액은 38.0% 증가한 3,918억 위안(약 71조 원)임
- 41개 공업 업종 중 13개 업종은 이윤이 증가하고 28개 업종은 이윤이 감소함. 이 중 전력·수력 부문, 전기기기, 일반장비 제조업 이윤 총액은 각각 51.2%, 33.7%, 14.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자동차 제조업의 이윤 총액은 1.0% 증가함

자료원 : 중국매일경제망

<https://www.nbd.com.cn/articles/2023-08-27/2983683.html>

2 제23회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 9월 8일부터 샤먼시에서 개최

- 중국 상무부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 푸젠성 샤먼시에서 제23회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발표, 100여개 국가(지역)의 8만 명의 참관객이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
- 상무부 천춘장(陈春江) 부장조리는 동 상담회는 상호 투자 촉진, 권위있는 뉴스 발표, 투자 트렌드 토론 등 3대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갖춘 국제적인 투자상담회의 하나로 발돋움 했다고 전함
- 푸젠성 완진푸(王金福) 부성장은 올해 상담회에는 ‘투자 촉진관’, ‘산업 혁신 발전관’, ‘프로젝트 자본 매칭관’ 등 3대 전시구역을 설치했다고 밝힘. ‘투자 촉진관’은 이미 62개 국가가 부스를 예약했고 ‘산업 혁신 발전관’은 스마트제조·디지털경제, 신에너지·녹색혁신 관련 천

여개 기업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중에는 슈나이더, 필립스, 지멘스, 제너럴일렉트릭 등 수십개의 글로벌 500대 기업과 화웨이, 비야디, 징둥물류 등 100여개 중국내 선도기업이 포함됨. ‘프로젝트 자본 매칭관’은 에너지절감·환경보호, 전자 정보,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문화 과학기술, 헬스케어 등 전시구역을 운영할 계획임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jjckb.cn/2023-08/23/c_1212259196.htm

3 2023 동북아박람회, 15조 원 규모 투자 유치 성공

- 제14회 중국-동북아박람회가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지린성 창춘시에서 개최되었으며, 글로벌 500대 기업 58개사, 중국 500대 기업 12개사, 국내외 60여개 유명 상협회 및 기관이 박람회에 참가했음
- 박람회 면적은 7만 평방미터로 8개 전시장을 운영했으며 표준부스 3,472개, 회의장 면적 2.5만 평방미터, 참가기업·기관은 1,006개사로 총 6만 건의 제품을 전시하였음. 한편 신에너지, 신형 농업, 장비제조, 의약·헬스, 현대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99건의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여 총 845억 위안(한화 약 1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음
- 지린성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동북아박람회를 총 14회 개최하여 79만 명의 바이어가 박람회에 참가했고 누적 3,032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투자 유치는 총 2조 539억 위안(약 372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함

자료원 : CCTV망

<https://baijiahao.baidu.com/s?id=1775382908229649682&wfr=spider&for=pc>

4 中, 30만 위안 이상 가격대 차량 인기 상승

- 중국 승용차시장정보대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가격대가 30만 위안(한화 약 5,438만 원) 이상인 모델 차량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31.9% 증가한 157만 대로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9%로 상승
- 특히 신에너지차 분야에서 그 특징이 뚜렷했으며, 1~5월 30만 위안 이상 가격대의 신에너지차 판매량 증가율은 121.8%로 누적 판매량은 33만 대에 달함. 한 소비자는 30만 위안 이상대의 차량을 구매한 이유를 차량 내부 공간이 쾌적하고 각종 스마트 기능도 겸비했으며 연료비도 절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음

- 6월부터 여러 신에너지차 업체는 잠재 고객 발굴을 위하여 30만 위안 가격대의 신차를 연이어 출시했으며, 샤오핑(小鹏) G6 판매가는 21~28만 위안, 텐쓰(腾势) N7 판매가는 30~38만 위안, 니오(蔚来) 관광모델 ET5T 판매가는 30~36만 위안, 가오허(高合) 하이파이 Y 호화SUV 판매가는 34~45만 위안으로 책정했음

자료원 : 중국상보망

<https://www.zgswcn.com/article/202308/202308231457301100.html>

5 광둥성 후이저우시, 제조업 분야 수출입 확대 추세

- 올해 상반기 광둥성 후이저우시(惠州)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했으며, 이 중 공업 분야 투자는 19.5% 증가한 771억 위안(한화 약 14조 원)으로 집계됨
- 후이저우시에서 투자액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엑손모빌 에틸렌 프로젝트가 건설 중이고, 엑손모빌 다야완(大亚湾)연구개발센터도 건설을 가동했으며, 다이킨(Daikin) 에어컨 화남지역 첫 생산기지가 건설을 가동하는 등 올해 중점 프로젝트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음
- 후이저우시는 전자정보, 신소재 2대 산업을 집중 발전시키고 국내외 선도기업을 꾸준히 유치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신형 에너지저장산업 산업클러스터 규모가 590억 위안(약 11조 원)에 달하는 등 신형 에너지저장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함
- 후이저우시 소재한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광둥웨이린(威林)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 매출이 20% 성장했으며, 이 중 대외무역 비중이 크며 증가폭이 확대되었다고 밝힘
- 한편 올해 상반기 후이저우시 기업들은 베이징, 상하이, 홍콩,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 오프라인 전시회 30여개에 참가하여 리튬배터리, 반도체 LED 디스플레이, 자전거, 가전 등 제품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였음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city.ce.cn/news/202308/28/t20230828_7368547.shtml

6 中, 상반기 반도체 분야 투자 전년 동기대비 22.7% 감소

- 치노리서치(CINNO Research)는 올해 상반기 중국(타이완 지역 포함)의 반도체 분야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22.7% 감소한 8,553억 위안(한화 약 156조 원)이라고 밝힘

- 투자 비중은 웨이퍼 제조(43.6%), 반도체 소재(20.1%), 칩 설계(18.9%), 패키징 테스트(11.5%), 설비(1.9%) 순이고 투자액은 각각 3,731억 위안(약 68조 원), 1,715억 위안(약 31조 원), 1,616억 위안(약 29조 원), 980억 위안(약 18조 원), 169억 위안(약 3조 원)임
- 반도체 소재별로는 실리콘(32.9%), 3세대 반도체 소재(15.6%), 전자화학품(9.7%)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고, 투자액은 각각 566억 위안(약 10조 원), 267억 위안(약 4.8조 원), 168억 위안(약 3조 원)임
- 치노리서치는 올해 말 스마트폰, PC 등 시장의 재고 조정이 완성됨과 동시에 자동차 전장,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2024년 상반기부터 반도체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매일경제신문망

<https://www.nbd.com.cn/articles/2023-08-22/2973057.html>

7 中, 의류 소매판매액 증가세...상반기 상장업체 실적 양호

- 8월 25일까지 중국내 의류 상장업체 25개사가 상반기 재무제표를 공개했으며, 17개사 순이익이 증가세로 전체의 60% 이상에 달했음. 순이익이 배로 성장한 기업은 2개사로 각각 흥식주식(洪兴股份), 진홍그룹(锦泓集团)이며 증가율이 무려 1,081.3%, 302.6%에 달함
- 흥식주식(洪兴股份)은 실내복, 내의 등을 경영하는데 올해 판매관리비 절감과 전년 대비 기저효과로 실적이 양호하다고 밝힘. 진홍그룹은 2017년 인수한 티니위니(TeenieWeenie) 브랜드가 올해 더우인 마케팅 등을 통해 매출이 16% 증가한 16억 위안(약 2,902억 원, 전체 매출의 77% 차지)을 기록하며 순이익 성장을 견인했다고 밝힘
- 이 외 피스버드(太平鸟), 치피랑(七匹狼), 빠오시냐오(报喜鸟) 등 브랜드의 순이익 증가율도 전부 50% 이상에 달했고, 관련 기업들은 유통채널 최적화, 단일 점포 운영효율 제고, 원가 및 비용 절감 등으로 경영실적이 개선되었다고 전함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류·신발·방직품 등의 소매판매액이 전년 동기대비 12.8% 증가하여 소비재 증가율(8.2%)을 상회했고 금·은·주얼리 증가율 17.5%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음

자료원 : 증권일보망

<http://www.zqrb.cn/finance/hangyedongtai/2023-08-26/A1693013811920.html>

8 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

- 최근 중국 주택건설부,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은 ‘개인 주택대출 중 주택수 승인 표준 관련 통지’를 발표하여 ‘인방불인대(认房不认贷, 주택 구매자가 대출 기록의 유무와 상관없이 구매자 명의로 주택이 없으면 첫 주택 구매로 간주)’ 정책 실시한다고 밝힘
- 초상증권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현재 ‘인방인대(认房又认贷, 소유한 주택수에 따른 대출한도 제한)’ 정책은 주로 1선 도시와 일부 2선 도시에서 실시하며, 이번 ‘인방불인대’ 정책의 출범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되찾는데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음
- ‘인방인대’ 정책을 실시해 온 도시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시안, 샤먼, 청두, 창사, 허페이, 푸저우, 우한, 칭다오, 닝보, 충칭, 스자좡 등지로 2021년 상기 도시들이 전국 부동산 개발투자의 28.3%, 상업용 주택 판매액의 30.1%를 차지했음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jjckb.cn/2023-08/28/c_1310738585.htm

9 中, 올해 1~7월 농산물 수출입액 4.0% 증가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7월 농산물 수출입은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한 1,986억 달러이며, 이 중 수출은 0.6% 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은 5.4% 증가한 1,428억 달러임
- 식용유, 채소, 수산물, 식용유자(식용유 추출용 종자·씨앗류) 수입이 각각 54.7% 25.9%, 14.7%, 13.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2023년 1~7월 중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

품목명	수출(억 달러)	증감률(%)	수입(억 달러)	증감률
곡 물	5.7	△16.6	123.9	△4.0
식용유자(식용유 추출용 종자)	10.0	△2.2	435.1	13.7
식용유	1.7	△19.2	61.7	54.7
채 소	105.7	12.4	6.7	25.9
과 일	33.5	△1.7	123.0	11.3
축산물	35.4	△5.3	282.7	△2.9
수산물	117.7	△12.3	141.4	14.7

자료원 : 중국 농업농촌부

<http://news.foodmate.net/2023/08/668637.html>